



구례군 산동면 일대 산수유 군락은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지난 3월 앞다뿔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천년 유산이 그려내는 봄 풍경... 그 자체로 '농업유산'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

7 구례 산수유 시목지



천 년 전부터 산동면에서 산수유를 재배했다는 전설을 입증해주는 산동면 계천리의 산수유시목.

활짝 핀 구례 산수유를 배경으로 정겨움을 하는 농부의 모습은 해마다 봄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와 신문 사진 뉴스의 단골 메뉴다. 그만큼 산수유는 봄을 알리는 상징적인 꽃이 됐다. 또 국내 최대 산수유 재배 단지인 구례군 산동면은 '산수유 하나로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수유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봄의 활기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로 구례 산수유는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림=구례군에는 전설처럼 산수유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천 년 전, 중국 산동성 처녀가 지리산으로 시집을 떠날 때 산수유 나무를 가져와 심었다. 이 처녀의 고향 이름에서 산동이라는 현제 지명도 태어났고, 산수유 군락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지역 산수유 농사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이야기다. 실제, 산동면 계천마을에는 천 년 수령의 산수유 나무가 있다.

현재 산동면 일대 83.6ha에서 산수유가 자라고 있고, 구례군은 이곳을 농업 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산동면 산수유 군락지는 한국 봄 농촌을 대표하는 하나의 풍경이다. 산수유를 가꾸고,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인 셈이다. 또 산수유는 건강 보조식품과 한약재 등으로 널리 쓰이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품화, 품종 개량도 활발=산수유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행복은 봄 한철 산지락을 장식하는 '꽃 잔치'로 끝나지 않는다. 산수유는 많은 부를 안겨주는 농업의 일부다. 구례군 산동면 일대 농가에서 산수유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한 해 수백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례 산수유는 산림청 등록번호 제15호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칭, 품질, 기타 특징이

산동면 일대 84ha 꽃으로 물든 산지락 '장관'

3월 중순~4월 중순 축제기간 300만명 방문

전국 생산량 70%...건강 식품·한약재로 인기

한 해 수백억 경제효과...농업유산 등재 추진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산수유 하면 구례'라는 공식을 인정받은 셈이다.

구례 산수유는 지난 2007년 12월 산림청에 등록을 신청해 심사위원들의 현지 확인, 인지도 조사, 타지역과의 성분비교 등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의를 통과했다. 상품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산수유를 상품화하고, 가능성을 높이는 품종 개량 작업도 활발하다. 전남도는 구례 산수유 지역전략식품사업단을 꾸려 산수유로 건강보조식품 '신기단'을 만들었고, 신기단은 일본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산수유 사업단에는 산동농협, 산수유영농조합법인 등 9개 단체와 431개 산수유 재배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일본 도쿄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해 산수유 관련 사업설명회와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 건강·미용 유통업체인 (주)REVE21사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구례 산수유는 지난 2010년부터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산수유사업단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연간 300t 이상 산수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설비를 자동화했고, 친환경체계 개발 및 무인월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로 농가당 134만원의 생산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산수유 사업단은 산수유를 가공해 '내몸안에 봄은 봄' 등의 브랜드 개발해 한 해 6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일반 농가의 수입 등을 포함하면 산수유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병에 강하고, 잘 자라는 품종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열매가 크고 형질이 우수한 '탐동 1호'와 '정산 1호', '정산 2호' 등 3개의 산수유 개체를 선발해 증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축제 기간 관광객만 100만명=구례 산수유 축제를 보려고 다녀가는 관광객만 한 해 300만명에 달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던 제14회 구례산수유꽃축제에 유례없는 인파가 몰리면서 총 관광객 100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산수유꽃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개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산수유를 보려고 구례를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산수유에 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산수유문화관과 산수유사랑공원이 개장해 관광객은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된다.

산수유 축제 기간에는 행사장에 마련된 향토음식점의 음식재료가 떨어져 장사를 중단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야생화 생태공원과 수달생태공원,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등이 문을 열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산수유를 보기 위해 구례를 찾고 농업유산 등재 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